

국민연금 광주본부, 친환경 물티슈 전달·환경정화 활동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윤중선)는 4일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를 전달하고 무등산국립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사진> 이날 지역본부 봉사단 '환경지킴이'는 국민연금 제도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부 직원들이 자주 찾는 인근 영세 식당을 찾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을 선물하세요'라는 내용의 캠페인 문구가 적힌 물티슈를 전달했다. 또 무등산국립공원을 찾은 봉사단은 탐방객

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를 전달하고, 탐방로 주변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했다. 윤중선 본부장은 "이번 소상공인 돕기 및 이와 병행한 연금제도 홍보활동으로 연금제도 인식 제고 및 매월 9만원씩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적극 안내해 성과 분석 후 인근 영세한 소상공인 돕기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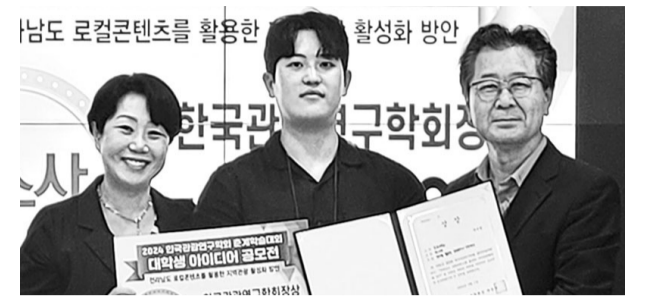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지난 1일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제난대응봉사회 봉사원 등이 참여한 이번 활동은 화재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광주시 동구 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가구는 지난해 12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긴급구호품을 받았지만 주거환경이 해결

되지 않아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분야의 지원을 받게 됐다. 봉사는 이후 도배 및 장판 전문업체를 통해 세단장을 실시할 계획이며, 입주식에서 소화가 될 전달할 예정이다. 봉철준 광주제난대응봉사회 회장은 "갈끔해진 집처럼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치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호남대 항공서비스학과 최시영 학생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학과장 진경미) 최시영 학생(21학년)이 최근 전남도립대에서 열린 2024년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전라남도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한국관광연구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로컬 관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국제, 특별, 학술대회, 대학생 공모전 세션 등 4가지 분야로 진행됐다. 최씨는 '청자를 활용한 삼겹살구이 식당 제안'을 주제로 우수상을 받았고, 한의진 지도교수는 우수 지도교수상을 수상했다. 최시영 학생은 "지역의 문화유산인 청자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TV프로그램

5일

※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TV programs for the 5th of the month.

TV프로그램

6일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TV programs for the 6th of the month.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5일(음4월29일 庚子)

☎ 010-9790-8237

36년생 예상과는 달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겠다. 48년생 분산된다면 핵심에 집중하기 힘들어진다. 60년생 누적된 것을 해소해 줘야 한다. 72년생 전례에 얽매일 필요까지는 없다. 84년생 지금 즉시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게 된다. 96년생 생각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니 우려할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3, 91

39년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51년생 잃었던 것을 찾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63년생 체면 따지지 말고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낫다. 75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다. 87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막상 열어보면 텅 비어 있노라. 99년생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6, 69

42년생 지금은 기탄없이 포부를 펼쳐야 할 시기이다. 54년생 근거 없는 소문에는 하등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66년생 지난해에 쌓였던 공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리라. 78년생 실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90년생 간접 경험의 효과가 매우 크겠다. 02년생 주중에 따라서 선후를 따져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4, 71

45년생 지나치다 보면 모순이 따를 수밖에 없다. 57년생 장담하고 나면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것이다. 69년생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81년생 아예 보고도 못 본 체하는 것이 속 편하리라. 93년생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 05년생 허황한 것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6, 80

38년생 고강도의 조치만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50년생 대수이하니 조금도 신경 쓸 필요 없다. 62년생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져서 애를 먹겠다. 74년생 소신을 바탕으로 한 주관이 절실할 때이다. 86년생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유지할 수 있다. 98년생 의지를 바탕으로 한 노력이 수반된다면 깊은 분명이 열리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76, 81

41년생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히 요청된다. 53년생 작은 일을 잘 해나 큰일도 지를 수 있는 법이다. 65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가 끼지 않느니라. 77년생 평상시에 관계를 돈독히 해두는 것이 편리함을 도모하게 된다. 89년생 중재대한 일이므로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01년생 상세해야만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10, 66

44년생 손기능이 극대화되면서 여러 가지 발전된 양상을 띠게 된다. 56년생 행해야 할 바를 소홀히 한다면 후회하게 된다. 68년생 안배를 꾀하려다가 오히려 명절을 드러낼 수 있느니라. 80년생 학수고대했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92년생 이대로라면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04년생 평탄하고 순조로운 판세이다. 행운의 숫자 : 18, 70

46년생 멀리 내다보면서 관계를 설정하라. 58년생 다수자가 이마를 맞대고 삼각하게 의논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다. 70년생 소모적인 요소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하라. 82년생 여태까지 공력을 들이며 추구했던 바에 탄력이 붙게 되는 날이다. 94년생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 06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순서대로 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8, 50

37년생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본다. 49년생 다각적으로 관련성을 살펴보고라면 대응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61년생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니 미리 알고 대비함이 현명하다. 73년생 예감했던 바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85년생 단순한 관점에서의 오만을 주의하라. 97년생 총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7, 95

43년생 인내의 한계에 도달할 정도로 괴로운 일이 보인다. 55년생 포장만 잘해도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67년생 꿈꿔 왔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79년생 원만한 상태이니 현자의 형국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91년생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레 펼쳐진다. 03년생 열린 마음으로 투명하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00, 87

47년생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겠다. 47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59년생 거짓 배려해주고도 홀대받을 수가 있다. 71년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타이 잡히리라. 83년생 가장 순수한 방법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다. 95년생 하는 일이 뜻하는 대로 잘 풀려 나가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9, 68